

2026년 6월 1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지수 2배 폭등이 만들어 내는 심리전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이란 휴전안 체결 과정, 2) 미국 5월 비농업 고용, 3) 미국 5월 ISM 제조업 PMI, 한국 5월 수출, 4) 브로드컴 실적 이후 반도체주 추가 랠리 여부, 5) 젠슨황 방향 이벤트, 6) 연초 이후 지수 100%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8,050~8,650pt).

연초 이후 코스피는 2배 폭등하면서 역사상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시현하는 중에 있으며(YTD +101%, 기준 1위는 1987년 +93%), IT하드웨어(YTD, +400%), 반도체(+201%), IT가전(+121%) 3개 업종만 코스피 성과를 상회하면서 지수 랠리를 견인했기 때문. 여전히 이익 컨센서스 추가 상향 등 상방 재료들은 잔존하고 있으나, “연초 이후 2배 급등”, “반도체, MLCC 등 AI 주도주의 독주가 만들어낸 업종 양극화”와 같은 인식들이 주도주 보유자들에게 단기적인 수익 확정 욕구를 제공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주중 대내외 주요 이벤트와 “지수 폭등 속도 + 업종 양극화 심화 현상”이 맞물리는 과정에서 여타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의 일중 주가 등락폭이 격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전략의 우선 순위에 넣어두고 가는 것이 타당.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29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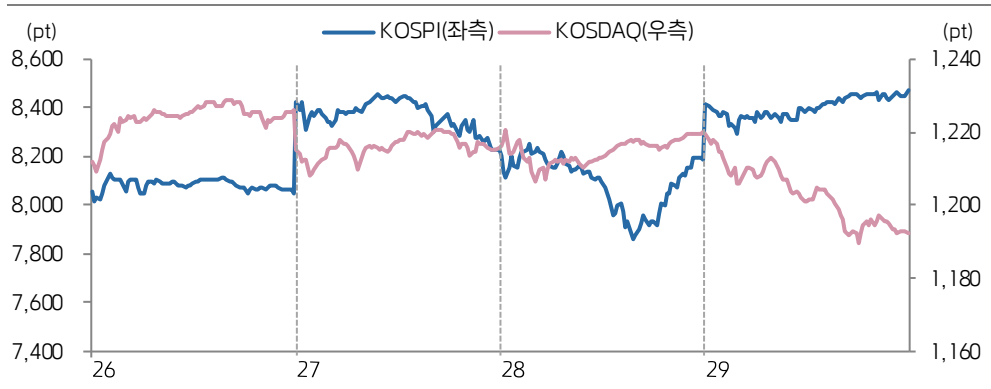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미·이란 종전 협상 진전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과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첫 증가 8,000선 돌파 및 최고치 경신. 주 초반 위험선호 심리 회복과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후반 매파적 금통위와 고환율 부담 속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 일부 반납(KOSPI +8.01%, KOSDAQ -7.43%).

코스피는 주 초반 미·이란 종전 협상 진전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과 반도체 업종 강세를 바탕으로 사상 처음 8,000선에 안착.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에 따른 수급 유입 기대가 더해지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으나, 반도체 중심의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업종 간 온도차 확대. 주 후반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국내주식 보유 한도 조정 관련 불확실성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조정 흐름 전개. 코스닥은 주 초반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을 계기로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이 심화되며 투자심리 위축. 업종 및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하락 마감.

대외적으로는 미·이란 종전 협상 진전이 투자심리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주 초반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했고,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완화. 이에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 환경 조성. 다만 주 중후반 들어 협상 타결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되며 상승 모멘텀은 다소 약화. 한편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상회하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수급 부담 확대. 또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음에도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제시되고 추가 긴축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주 후반 투자심리 위축 및 차익실현 심리 자극.

업종별로 IT 서비스(+18.9%), 전기/전자(+13.76%), 제조(+10.24%), 운송장비/부품(+4.07%)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의료/정밀기기(-9.86%), 증권(-8.81%), 종이/목재(-7.64%), 금속(-7.43%), 기계/장비(-6.96%)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4조 1,648원)은 기계/장비(-1,657억원), IT 서비스(-645억원), 보험(-493억원), 일반 서비스(-493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2조 1,308억원)은 전기/전자(+33,730억원), 제조(+24,771억원), KOSPI(+21,308억원), 운송장비/부품(+5,116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6월 1일	월	한국	무역수지	5월	\$24,950M	\$23,755M
			수출 (YoY)	5월	49.3%	48.0%
			수입 (YoY)	5월	21.5%	16.7%
		중국	레이팅독 제조업 PMI	5월	51.3	52.2
		EU	5월 제조업 PMI (최종치)	5월	-	51.4
		미국	S&P 제조업 PMI (최종치)	5월	-	55.3
		ISM 제조업 PMI	5월	53.2	52.7	
6월 2일	화	한국	CPI (YoY)	5월	2.9%	2.6%
		미국	JOLTs 구인이직건수	4월	6,857K	6,866K
		발언	미니애폴리스 연은행재·클리블랜드 연은행재			
6월 3일	수	미국	ADP 취업자 변동수	5월	110K	109K
			ISM 서비스업 PMI	5월	53.8	53.6
			제조업 수주 (MoM)	4월	-	1.5%
	휴장	한국(전국동시지방선거)				
	실적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울타 뷰티				
6월 4일	목	공개	연준 베이지북 공개(오전 3시)			
		실적	브로드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6월 5일	금	한국	경상수지	4월	-	\$37327.1m
		EU	GDP 성장률 (QoQ, 최종치)	1분기	0.1%	0.2%(0.1%)
		미국	비농업고용자수	5월	90K	115K
			실업률	5월	4.3%	4.3%
			시간당 평균임금 (MoM)	5월	0.3%	0.2%
			시간당 평균임금 (YoY)	5월	3.4%	3.6%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이란 휴전안 체결 과정, 2) 미국 5월 비농업 고용, 3) 미국 5월 ISM 제조업 PMI, 한국 5월 수출, 4) 브로드컴 실적 이후 반도체주 추가 랠리 여부, 5) 젠슨황 방한 이벤트, 6) 연초 이후 지수 100%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8,050~8,650pt).

29일(금) 미국 증시는 미-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따른 유가 약세(WTI 88달러 하회), 어닝 서프라이즈로 폭등한 델(+32.8%), 메모리 업사이클 전망이 강화된 마이크론(+5.1%), 샌디스크(+3.3%) 등 테크주 강세에도, 월말 리밸런싱 및 월 중 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여파로 소폭 상승 마감(다우 +0.7%, S&P500 +0.2%, 나스닥 +0.2%).

지난주 주요국 증시에서 금리 상승, 유가 불안 등 매크로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준 것은 미-이란 휴전 기대감에서 주로 기인. 종전 현실화 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및 그에 따른 유가 레벨다운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 주말까지 확인된 뉴스 플로우를 종합해보면, 아직 트럼프의 휴전 MOU 최종 승인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 이는 이번주에도 MOU 체결 과정을 놓고 마찰음이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하지만 이미 증시에서는 “협상 타결 및 휴전”이 베이스 경로인 만큼, 지표, 실적, 수급 이벤트가 이번주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결정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

이번 주 매크로상 주요 이벤트는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이 해당. 현재 컨센서스는 신규 고용이 9.5만건(vs 4월 11.5만건), 실업률이 4.3%(vs 4월 4.3%)로 전달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형성. 지금은 고용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전보다 고용의 중요성이 낮아질 수 있음. 다만,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의 첫 회의인 6월 FOMC에서 그의 정책 스탠스와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변화에 반영되는 지표임을 상기해 볼 필요. 또 5월 고용 결과에 따라 10년물 금리의 단기 향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반도체 이외 성장주(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주가 모멘텀과 결부된 사안이라는 점도 대응 전략에 반영해 놓는 것이 적절.

고용 이외에도 5월 ISM 제조업 PMI와 한국의 5월 수출도 간과할 수 없는 매크로 이벤트. 5월 ISM 제조업 PMI(컨센 53.2 vs 4월 52.7)의 경우, 전체 지수보다는 세부항목인 제조업 물가 지수(컨센 85.3 vs 4월 84.6)의 중요도가 더 클 전망. 제조업 물가를 통해 차주 발표되는 5월 CPI 향방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 월요일 국내 장 시작 전에 발표 예정인 한국 5월 수출(YoY 컨센 48.4% vs 4월 48.0%)에서는 50%대 내외의 고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 또 현재 국내 증시의 주도주가 반도체 업종임을 감안 시, 지난달 173%대 증가율(YoY)을 기록한 반도체 수출 실적 모멘텀의 연속성 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는 브로드컴 실적, 젠슨황 방한이 주도주들의 수급 변화를 좌우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실적 기대감을 선제적으로 소진한 브로드컴의 이번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 및 가이던스 추가 상향 여부가 중요. 이번 실적은 빅테크 업체들의 대규모 AI CAPEX 확대 사이클(26년 7,100억 달러 이상)의 지속성과도 연관되어 있음. 즉, “서버 신규 증설 및 교체 수요 변화 -> 레거시 메모리 수요 변화 -> 메모리 공급 업체 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이벤트라고 판단.

브로드컴 실적(4일) 직후 다음날 5일 예정된 젠슨황의 방한 일정에서는 삼성그룹, 현대차 그룹

2026년 6월 1일

KIWOOM WEEKLY

이외에도, SK그룹, 네이버, LG 그룹과의 AI, 로봇틱스 협력 구체화 여부가 관건. 다만, 이미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에서는 젠스항 향한 내러티브 확산으로 관련 그룹주들이 동반 폭등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 주 중반까지 단기 내러티브 소진에 따른 차익실현 압박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대목이기에, 주중 로봇틱스 관련주들의 수급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

상기 이벤트들 이외에도, 코스피는 주가 폭등에 따른 단기 부담도 마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 연초 이후 코스피는 2배 폭등하면서 역사상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시현하는 중에 있으며(YTD +101%, 기준 1위는 1987년 +93%), IT하드웨어(YTD, +400%), 반도체(+201%), IT가전(+121%) 3개 업종만 코스피 성과를 상회하면서 지수 랠리를 견인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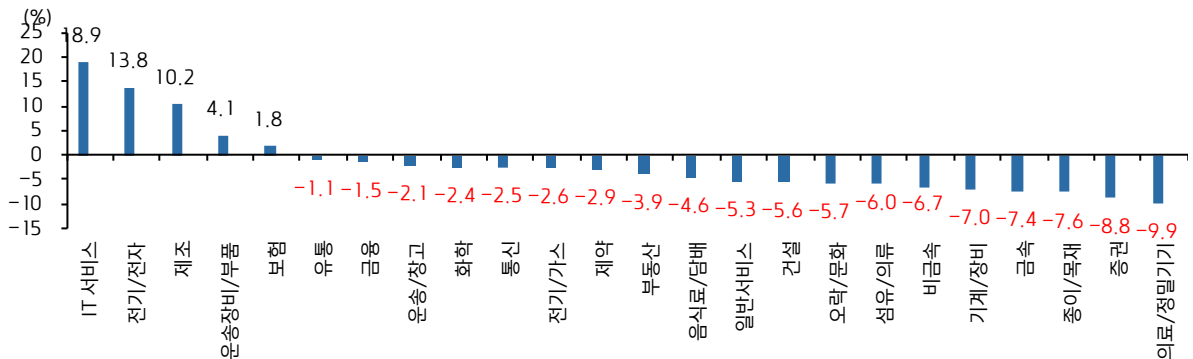
여전히 이익 컨센서스 추가 상향 등 상방 재료들은 잔존하고 있으나, “연초 이후 2배 급등”, “반도체, MLCC 등 AI 주도주의 독주가 만들어낸 업종 양극화”와 같은 인식들이 주도주 보유자들에게 단기적인 수익 확정 욕구를 제공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주중 대내외 주요 이벤트와 “지수 폭등 속도 + 업종 양극화 심화 현상”이 맞물리는 과정에서 여타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의 일종 주가 등락폭이 격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전략의 우선순위에 넣어두고 가는 것이 타당.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8,476.15	3.6	8.0	26.7	101.1
대형주	9,341.25	3.9	9.3	31.2	113.4
중형주	4,650.20	-0.7	-5.1	-10.0	24.9
소형주	2,585.47	-2.5	-7.4	-15.5	2.7
코스피 200	1,342.82	3.9	9.5	33.4	121.6
코스닥	1,074.80	-2.7	-7.4	-11.9	16.1
대형주	2,698.13	-2.3	-5.6	-7.9	19.9
중형주	1,086.93	-3.0	-9.1	-15.7	20.8
소형주	2,849.25	-3.1	-9.3	-15.1	10.7
코스닥 150	1,883.33	-2.4	-5.5	-8.6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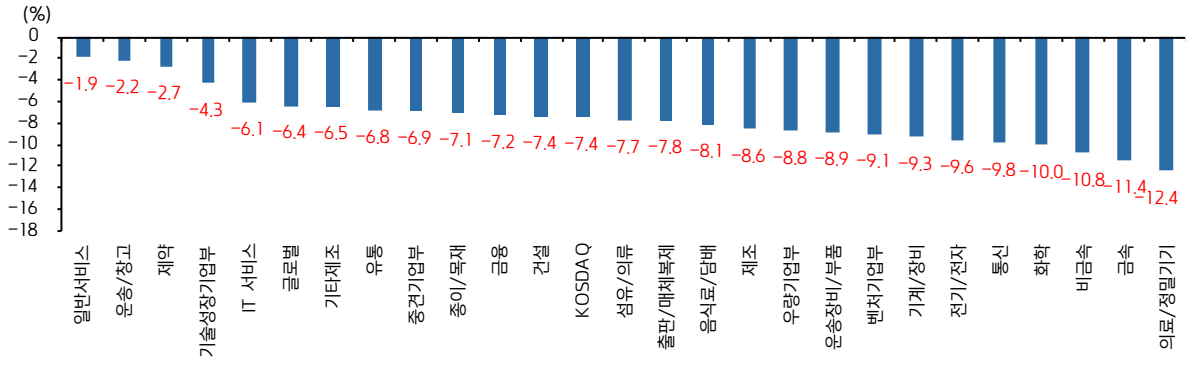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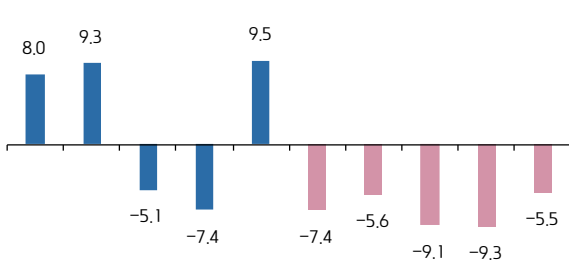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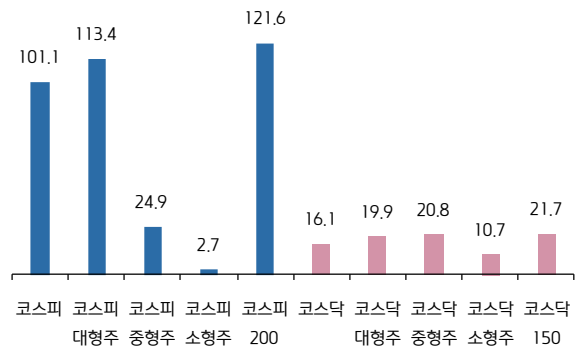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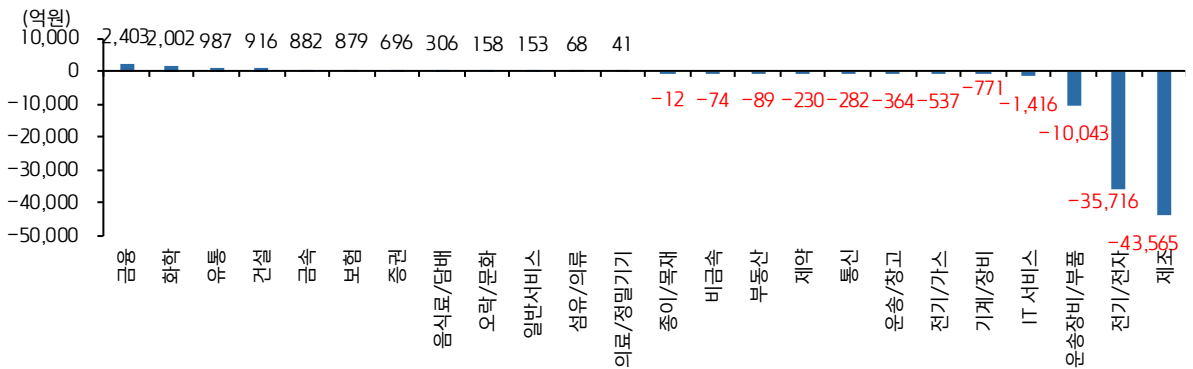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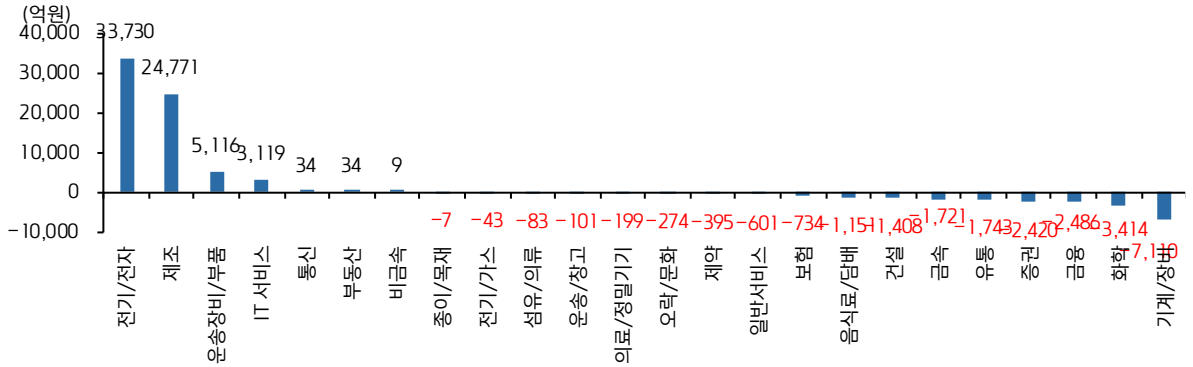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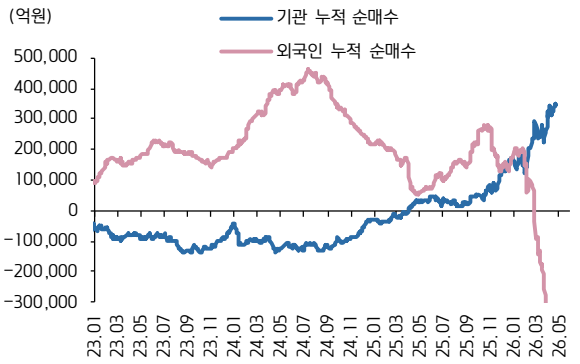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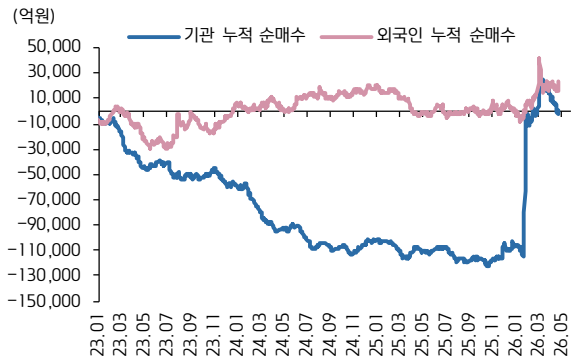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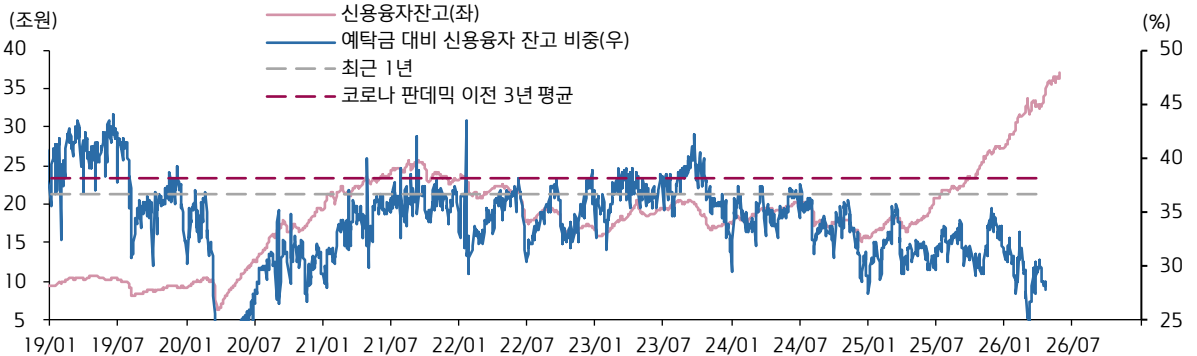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6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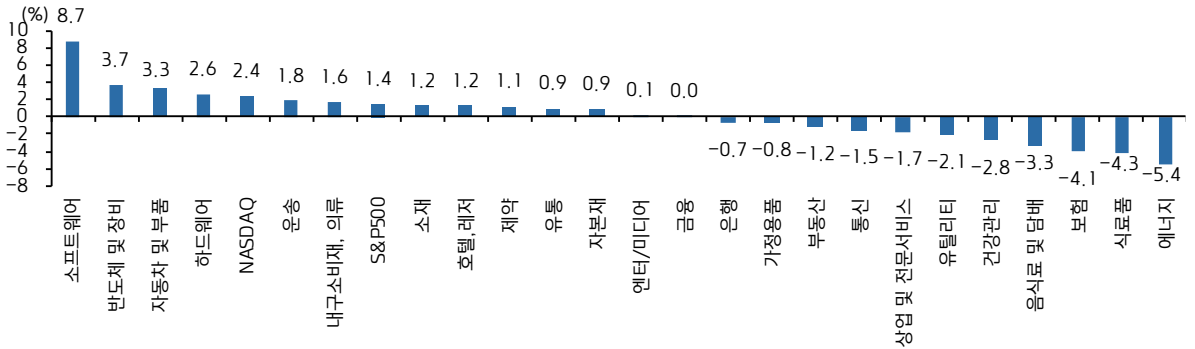
KIWOOM WEEKLY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